

映像翻訳

2022年 NHK 放送韓国ドラマ『王女ピョンガン・月が浮ぶ川』
シナリオ(全 22 話) 森脇錦穂 (翻訳)



<https://mechacommic.jp/books/170814>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108/0003149420>

NHK 放送韓国ドラマ『王女ピョンガン月が浮ぶ川』シナリオ(全 22 話)

달이 뜨는 강

月が浮かぶ川

1 부 (第 1 話)

극 본 (脚本) 한 지 훈 (한 지훈)
연 출 (演出) 윤 상 호 (윤상호)

1. 프롤로그

화면 시작되면 6세기 후반, 반구형으로 주욱 펼쳐지는 중앙 아시아 대륙. (후략) ...

/ CG 화면이 실제로 바뀐다. 별판을 달리는 말. 가죽 갑옷 차림으로 초조한 표정의 평강이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평강 (소리-애타는) 달아. 기다라... 내가 갈 때까지... 조금만 버티 줘...

높은 지형에 올라 말을 멈추는 평강. 멀리 아래편을 본다. 시커먼 연기와 흙먼지가 어지럽게 피어오르는 싸움터. 입술 깨우는 평강.

평강 (지체할 시간이 없다. 힘껏 박자를 가하며) 이라!

2. 평사벌 곳곳

햇빛에 반짝, 광채를 뿜는 칼날! 칼자루를 움켜쥔 온달, 맹수같은 눈빛으로 함성 지르며 달려 나간다. 청쟁! 병장기가 부딪힌다. 북주의 천기군 병사를 차례로 베어 넘기는 온달. 등 뒤에서 웅원하듯 힘차게 필릭이는 순노부 깃발.

/ 싸움터 외곽. 우두두! 말을 몰아온 평강. 그대로 도약한다. 착지하며 몇 바퀴 구른 뒤, 일어나는 동시에 칼을 뽑는다. 덤벼들던 천기군 병사가 피를 뿌리며 쓰러진다. 흠칫 고개 돌려 온달을 찾는 평강.

온달 (소리) 가진아...

평강 (소리) 달아...

/ 카잉!! 온달의 검과 천기군 대장의 도끼가 스치듯 부딪힌다. 거구의 힘에 밀려 나뉘는 온달. 그 바람에 소매 안쪽에서 떨어져 나가는 청옥 팔찌. 흠칫! 온달이 팔찌에 시선 주는 찰나, 도끼가 허공을 가르다. 컷! 망연히 무너지는 온달. 컷! 아득한 시선으로 하늘을 보는 온달. 눈이 부시다.

온달 (소리) 보고 싶다... 가진아...

1. 프로로그

画面が始まると6世紀後半、半球形に徐々に拡大する中央アジア大陸...

/CG画面が実写に変わる。平原を走る馬。革の甲冑を纏い、焦りを隠せない表情のピョンガン。風に乱れる髪。

ピョンガン (祈るような声で)ダル。待って...。私が行くまで...もう少し耐え抜いて...

高台に上り、馬を止めたピョンガン。眼下遠くを見下ろす。真っ黒な煙と土埃が巻きあがる戦場。唇を噛みしめるピョンガン。

ピョンガン (一刻も早く急がなければ...。思いっきり馬に拍車をかける) ヤア!

2. ピョンサ原の光景

太陽が反射して煌めく刃! 剣を握りしめたオンダル。獣のような目つきで喊声を上げながら突進する。刀剣のぶつかり合う金属音。北馬のチョンギ軍の兵士を次々切り倒すオンダル。そんな彼を奮い立たせるかのように力強く翻る順奴部(スンノブ)の軍旗。

/ 戦場の一隅。ドドド...! 馬を走らせたどり着いたピョンガン。着くや否や馬から飛び降り、地面を転がりながら立ち上がり膝に素早く剣を抜く。飛び掛かるチョンギ軍の兵が血しぶきを上げ、倒れこむ。辺りを見回しながらオンダルを探すピョンガン。

オンダル (声)カジン!!

ピョンガン (声)ダル!!

/ ガキーン!! オンダルの剣とチョンギ軍大将の斧がぶつかる。巨漢な敵の力に押され、倒れ込むオンダル。その時、袖の中から地面に転げ落ちた青玉の腕輪。その腕輪に気を取られた隙を狙って斧が切りかかる。崩れ落ちるオンダル。薄れゆく意識の中で青空を見上げるオンダル。眩しい...

オンダル (声)会いたい...。カジン...